

연결되면서 동시에 일상과의 분리를 근원적으로 지향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상의 커뮤니티가 가진 연대성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역량으로 재고찰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봤을 때, 한편 이 연구는 축제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를 좀 더 과감하게 상상하고 제시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이 연구의 이후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연구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 축제의 흐름과 파악’, ‘지금 시대 축제의 가치와 미션 도출’ 등의 목적도 눈에 띄었다. 한국 축제 현장에서 처음 여러 명의 축제기획자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다는 의미에서 이 연구가 지녔던 사명감과 소명 의식이 무엇이었는지도 짐작하게 만든다. 축제는 이미 중단되어 있었지만, 한편 축제는 중단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몇몇 축제기획자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그 맥은 이어왔다. 비록 A라는 축제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닐지라도 A축제의 중단이 B축제의 탄생으로, 또다시 B축제의 전환이 C축제의 확장으로 계속 연결되어 확장해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연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의 축제 기획자 커뮤니티를 지켜내게 되었다.

축제는 앞으로도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연구가 가졌던 문제의식이기도 한, 어떤 상황에서도 축제를 지켜나가는 축제기획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기획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이를테면 예상하기 어려운 공공의 지원금 규모, 정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지자체장의 의지, 코로나 및 이태원 참사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봤을 때, 더 늦기 전에 한국 축제의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 기록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 가능성의 지평을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이 연구가 환원되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 축제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 소준철

도시사회학 연구자

나는 축제기획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잘 모른다. 축제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 해야 할 일을 상상해 볼 뿐이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축제기획자들을 상상해보면, 자신이 속한 ‘신(scene)’ 안의 구성원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단적인 행위에 참여시키는 사람이며, 또 ‘신(scene)’ 바깥의 사람들을 모아 그 행위를 경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렇게 기획자들은 축제라는 계기를 통해 자신들과 씬 안의 동료들, 씬 바깥의 사회와 함께 공명한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사회를 멈춰 세웠다. <sup>1</sup>축제는 사회의 일부이기에 역시 멈췄다. 축제판 바깥으로 전해진 축제의 소식은 늘 같았다. 재정을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재정을 집행하는 기획그룹이 사정이 나아지길 기다리며 ‘연기’한다거나 부득이하게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떻게 극복할지는 알기 어렵다. 이런 사정에서 이 연구는 기획자들이 어떻게 일해왔는지, 어떻게 일하려 하는지 그 사정을 담은 중요한 연구다.

기획자들의 말 가운데서 인상적인 인식은 여기 있다. 이수정의 질문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이미 중단되어 있었는가”란 질문은 흥미롭다. 축제의 위기가 비단 코로나19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인식이며, 축제가 정치(와 자본)의 도구가 됐다는 반성이자, 기획자들이 피동적 존재가 되었다는 반성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성스럽고 순수한 축제와 능동적인 기획자라는 이상향에 미치지 않은 고백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과 고백은 성찰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라는 대립항 안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사정은 기획자들을 모순으로 빠트리기 때문이다. 애초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획자들이 만들어 낸 축제 안에 성스러운 차원과 속된 차원이 공존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일들이 성스러운 것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엘리아데의 말을 빌리면, ‘축제가 중단되었다’는 발화는 기획자들이 속된 사정에서 축제의 정신과 성스러운 것을 깨치려 애쓰는 방증이라 생각한다. 기획자의 일과 축제라는 사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차라리 질문을 살짝 틀어 볼 필요가 있다. 성스러운 축제의 상실을 묻기보다, 사회가 멈춘 세계의 축제에서 기획자는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 때문

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멈춤은 비단 축제의 멈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여럿이 모이는 일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사회가 개인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됐다. 게다가 이제는 대면접촉이 아닌 비대면접촉이 집합행위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물리적인 사람의 집합행위에 의해 이뤄져 온 축제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포함된다. 이러한 바뀐 조건 아래에서 여럿이 모이게 해야 하는 기획자의 사회적 역할과 방법이 어떡해야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에 어려운가를 물어야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기획자들은 일상에서 겪은 삶과 일의 버거움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만든 일의 중단이 가져온 변화를 토로한다. 기획자는 다른 기획자, 지방자치단체와 그들의 보조금, 국내외의 씬, 관련 산업체와 후원자, 관객을 연결하고 있다. 동시에 시간과 공간, 정치의 영향 아래 있다. 문제는 기획자들이 축제에 다양한 행위자를 연결해 이어나가는 무지막지한 일에 비해 보상과 사회적 인정이 작은 데 있다. 특히,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짧으면 몇 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준비하는 기획과정은 단 며칠 뿐인 축제의 실행에 비해 중요도가 작게 여겨지기도 한다. 축제의 평가지표가 ‘참여자 수’로 특정되는 상황이 그 예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축제의 중단을 말하고 있지만, 이 시간은 쉽없이 달려 온 축제의 노정을 돌아볼 기회가 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축제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가”, “기획자는 어떻게 축제를 만드는가”가 말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이다. 참여자들 가운데 임현진의 경험은 특히 값지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겪어낸 “감각이 뒤엉킨” 경험, 또 모두를 위한 “공동의 장례식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의 발견,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가 “감각을 되찾기” 위한다는 바람은 축제의 사회적 의미를 잘 보여준다. 이렇기에 축제는 “만남”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 “각자가 감정을 품어내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임현진과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되어야 한다.

기획자들은 축제가 사회와 어떻게 호응할 것인지, 축제가 어떤 역할을 도맡을지 더 말해야 한다. 축제는 다양한 위기 앞에 서 있다. 불평등한 사회의 불안정한 예술가들의 위기,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 국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검열에서 발생하는 국가 폭력, 강남역 살인사건과 문화예술계의 미투 운동으로 대변되는 성폭력과 성차별 등 그 위기는 끊임 없다. 더구나 코로나19와 같이 개인을 극단적으로 고립시키는 위기까지 경험했다. 이제 축제는 무엇을 위해 사람을 만나게 할지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다.<sup>2</sup> 잠시 멈춘 지금의 시간은 익숙한 것들을 벗겨내고, 새로운 습관을 익혀야 하는 시간이 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신과 다른 이의 축제를 소재로 만드는 일을 피해야 한다. 축제의 형성 과정이나 위기의 극복 방법을 논할 때, 해외의 유

2 예술가들의 어려움과 죽음의 연이어드는 상황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을 시도했고, 성공했다. 그러나 축제는 무얼 어떻게 했을까? 특히 해당 ‘씬’의 예술가들을 위해 축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특정한 ‘씬’의 영역에서 이뤄지는 축제를 사회운동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축제는 하나의 거대한 물리적 실체다. 또한 참여자들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을지OB베어나 쿼퍼레이드와 같은 운동과는 다르다.

명한 축제가 동일하게 논해진다. 예를 들면, Edinburgh Festival(1947~현재), Glastonbry(1970~현재), Burning Man(1986~현재), Coachella(1999~현재)와 같은 ‘탁월한’ 축제를 말한다. 이 지점은 난감하게 읽힌다. 마케팅, 역사, 흥행, 진정성과 같은 서로 다른 분류 아래서 ‘유명한 축제’의 일부만을 들여와 이식하는 소재주의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이제 이러한 소재주의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sup>3</sup> 왜냐면 각자의 축제가 어떤 자장 아래서 사회와 호응하는지, 그 축제와 자신의 축제가 같고 다른 점이 무언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축제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각자의 축제가 왜 생겨났고, 어떻게 버텨왔는지 돌아볼 뿐만 아니라 축제라는 영역의 역사와 분류, 성쇠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십수 년째 축제를 만들고 있는 기획자로서의 자신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특히, 속된 것을 부끄럽게만 여길 필요는 없다. 삼십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다양한 후원자들과 여러 방식의 축제를 만들어왔다. 후원자 혹은 자본에 종속된 축제의 한계만을 논하기보다는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치적 사정 아래에 놓인 축제라는 불안정한 위치성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관계 축제’의 가능성과 한계, 외부자원을 끌어들이지 않는 대안적 축제의 가능성과 한계, 축제 간의 이익을 공유할 가능성과 한계 등을 고민해야 한다. 또 ‘망한’ 축제나 ‘중단된’ 축제를 어떻게 살펴야 할지 그 방법을 묻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 기획의 중요함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축제에는 대체로 기획자, 특정 씬, 관객(혹은 이용자), 정부, 관련 산업 등의 행위자가 존재한다. 이들 사이에서 축제기획자는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며 여러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축제의 실행보다 축제의 기획과정이 중요하다는

3 거부해야 할 소재주의의 대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축제의 디지털화 혹은 온라인화다. 예컨대 닷페이스가 시도한 쿼어퍼레이드의 온라인화가 그 예다. 쿼어퍼레이드는 ‘지키자는’ 마음에 ‘지키려는’ 행동이 더해진 하나의 운동이며, 움직임이다. 퍼레이드는 그 방법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획자와 참여자 모두 실천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이 있다고 믿기에, 설동준의 말대로 관계망이나 정신이 상실되지 않고, 시스템의 플랫폼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었다. 즉, (능동적) 행위를 창출하는 행위가 중요하기에 참여의 방법에 있어 물리적 한계가 적고, 플랫폼에 대한 자유도가 높다.

반대로 특정한 ‘씬’의 축제는 다르다. 기획자나 참여자 모두 ‘씬’에 대한 애정과 익숙한 생활로부터의 일탈이 핵심이다. 즉, 이질적인 공간으로의 이동이 무척 중요하다. 즉, 축제라는 플랫폼, 혹은 특정한 시공간을 생산하는 체계가 무척 중요하다. 대개의 축제는 규모의 사회가 작동하는 영역이며, (기존 텔레비전, 컴퓨터로의 ‘소비’를 넘어서는) 대면적 경험에 대한 기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과 관계망이나 정신의 연결 정도가 약하기에, 시스템의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즉, (수동적) 행동으로 구성된 축제는 기존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제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가 당연한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점을 공식화해야 한다. 기획자의 기획은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며칠의 축제보다 몇 개월, 몇 년의 기획과정을 어떻게 드러낼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더 나아가 장시간 동안 비용과 인력을 집중해서 단 하루 길게는 며칠 동안 이익을 얻어내는 구조를 계속 유지할지, 변화를 꾀할지 판단할 때이기도 하다.

지금은 축제가 중단된 시간이라기보다 새로운 방법을 갓출 시간이라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내게 축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기획자가 나서 여러 행위자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사회를 네트워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과학기술학 연구자 브루노 라투르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에게 사회는 종과 수가 다양한 노드들이 링크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망상 조직이다. 예컨대 사회는 전화선이나 철도망처럼 비용을 들여 건설하고,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얇고 연약하고 듣성듣성한 특징을 가진 대상이다. 이제 축제를 안과 바깥으로 구분하거나, 성과 속 같은 가상의 대립항 만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sup>4</sup> 축제 역시 하나의 사회이며, 기획자는 (단 며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하고 연결하는 존재라는 공동의 선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평가에 있어 축제의 ‘참여자 수’가 아니라 축제가 어떤 사회를 연결했는지를 말할 필요가 있다.<sup>5</sup>

이 연구는 축제기획자들의 작은 고백 모음집과 같다. 잠시 멈춘 축제와 달리 축제를 기획하는 기획자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처럼 축제하기 위한 기획자들의 “몸부림”이 계속되는 한 축제는 중단되지 않으리란 기대를 하게 한다. 또 이들이 있기에 어떤 축제든지 참여자들 모두가 “일상의 연속선상에서 잠시 일탈로 전환되는 맥락”과 그 “구체성”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신도 든다. 이러한 기대와 확신은 기획자들이 가진 노력과 시도에서 기인한다. 앞으로 이어 나갈 기획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넘어 자신들이 경험한 위기와 극복, 혹은 실패에 대한 공유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 참여하는 기획자들 역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축제가 무얼 해왔고, 무얼 나누는 자리인지 더 많이 떠들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4 라투르는 사회를 두고 미시, 거시, 내부, 외부와 같은 기존의 구분보다 섬유, 실, 철사, 끈, 밧줄, 모세혈관 같이 네트워크 자체의 형태와 물질, 역할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5 더 나아가 이러한 ‘연결’이 다양한 축제가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리라는 대책 없는 상상도 해본다. 참여자들의 고민처럼 공공이나 후원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자율성이 줄어드는 문제는 여러 기획자들이 동시에 토로하고 있다. 이는 축제의 이익이 작거나 그 이익이 불분명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축제와 축제를 서로 연결하고, 축제들의 이익을 공유하며 연대하는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예컨대 ‘축제들의 축제’를 벌여 여러 축제가 연결하고, 기획자들이 연대하며, 서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 말이다.